



# 설기현 출전 기회?

### 팀 공격수 케빈 도일 부상따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출전 엔트리에서 제외돼 우려를 낳고 있는 설기현(28·레딩FC)이 소속팀 레딩의 간판 골잡이 케빈 도일(24)의 부상으로 전방 공격진에 복귀할 가능성이 생겼다.

설기현은 14일 밤 구디스파크에서 열린 에버튼과 원정 경기에 결장했다. 교체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스티브 코펠 감독이 지난 10일 FA컵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설기현의 체력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슬럼프 기미를 보여 자칫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설기현은 주된 포지션인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자리에서 백전노장 글렌 리틀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틀이 코펠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어 주전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10골로 정규리그 득점 순위 3위를 달리는 도일이 에버튼전 전반 37분 조레온 레스콧의 태클에 허벅지를 다쳐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포지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펠 감독은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과 가진 인터뷰에서 "도일의 부상이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소 몇 주 회복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일은 정밀 촬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일이 당분간 나오지 못할 경우 설기현이 트로이 리타와 함께 투톱으로 나설 수 있다. 스트라이커 요원으로 스무 살 신에 세인 톱이 있지만 아직 팀내 입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잠시 투톱에 배치됐던 설기현으로서 스트라이커로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토트넘 핫스퍼의 이영표(오른쪽)가 15일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 시비에 르스키와 공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표 풀타임 출전에 만족...평점 5

### 토트넘, 뉴캐슬에 2-3 역전패

이영표(30·토트넘)가 풀타임 출전하며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으나 팀은 역전패했다.

토트넘은 1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다섯 골을 주고 받는 공방 끝에 2-3로 졌다.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이영표는 정규리그 8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을 이어가 주전 경쟁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영표는 초반 제임스 밀너에게 돌파를 허용했지만 전반 21분과 32분 상대 공격수 볼을 인터셉트해 역습으로 연결했고 후반 19분과 23분, 종료 직전에는 왼쪽 측면을 뚫고 크로스를 올려 공격에 가담했다. 후반 41분엔 직접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세이 기본에게 막혔다.

토트넘은 전반 13분 스티브 말브랑크의 왼쪽 측면 돌파에 이어진 팡발 크로스를 문전 쇄도하던 저메인 데포가 슬라이딩 슈트로 꽂아넣어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2분 뒤 뉴캐슬의 폴 헌팅턴에게 곧바로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 9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혼전 중 흘러나온 볼을 오른발 대각선 슈트로 네트에 꽂아 다시 리드를 잡은 토트넘은 후반 27분 오베파미 마르티네스에게 그림같은 왼발 중거리포를 얻어맞아 동점골을 내주고 1분 뒤 마르티네스의 패스를 받은 니키 버트에게 빠이픈 결승골을 허용했다.

토트넘은 9승5무9패(승점32)가 돼 레딩과 비긴 에버튼에 뒤져 8위로 떨어졌다.

한편 영국 축구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이영표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Failed to impose himself)'는 평가 함께 5점을 매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베컴 중원 사령관”

### 갤럭시 알몸 감독

세계 축구계 및 연예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미국프로축구 LA 갤럭시로 이적한 잉글랜드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32)이 앞으로 '중원 사령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AFP 통신에 따르면 LA 갤럭시 프랭크 람프 감독은 “베컴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으면 한다. 베컴이 볼을 다루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중앙 미드필더가 베컴에게는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말했다.

베컴이 그동안 주로 맡아온 포지션은 오른쪽 미드필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부터 베컴은 풀백 팀의 오른쪽 공격을 담당했으며 특히 정교한 오른발 프리킥이 일품이다.

베컴은 오는 7월부터 LA 갤럭시로 이적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지만 알몸 감독은 베컴이 일찌감치 팀에 합류하길 바라고 있다.

이는 MLS 시즌이 4월부터 시작하는 데다 베컴의 현 소속팀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 베컴을 뛰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또 LA 갤럭시는 지난해에는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상무 동계훈련 돌입

프로축구 광주 상무는 15일부터 30일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1차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15일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풀기를 하고 있다.

## 김연아 동계亞대회 출전 불투명

요즘 김연아(17·군포 수리고)의 어머니 박미희(48)씨는 가슴이 무겁다.

2007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허리 디스크 초기' 판정을 받은 딸의 통증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서다.

김연아는 지난 2일 태릉 실내빙상장에서 새해 첫 훈련을 시작하던 중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껴 훈련을 중단하고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 뒤 디스크 초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물리·재활치료와 함께 매일 한 시간씩 빙상훈련을 병행해 온 김연아는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간 지 2주째지만 여전히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미희 씨는 15일 “치료가 80%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통증을 느낀다면 훈련 강도를 높일 수 없다”며 “보통 대회 2주 전에는 완벽한 몸 상태로 하루에 두 차례 정도 훈련해야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평상시 훈련량의 10%도 못하고 있는

## “통증 지속...훈련 안돼”

### 김민수 어머니 걱정

상태”라고 걱정했다.

그는 “주변의 기대가 커서 마음이 무겁다”며 “몸이 되지 않는 선수를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시키는 것도 무리다. 약간의 차도가 있지만 통증이 계속돼 걱정”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동계아시안게임 피겨 종목은 2월 1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이 때문에 26일에는 중국으로 떠나야 하는 김연아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 올림픽축구 대표팀 선수 차출 거부

### K리그 전구단 결의

프로축구 K-리그 전 구단이 올림픽축구 대표팀 선수 차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K-리그 14개 구단 단장들은 1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를 열어 올림픽대표팀의 카타르 8개국 초청 국제대회(21일~31일) 참가와 관련, “규정에 없는 친선대회에 소속 선수들을 내줄 수 없다”며 선수 차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프로축구 전 구단이 대한축구협회의 대표

팀 소집 요청을 거부한 것은 초유의 사태로, 대표팀 대회 출전 자체가 무산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철 프로연맹 홍보부장은 이사회 결과 브리핑에서 “14개 구단 단장이 전원 참석해 대표팀 차출 문제를 논의한 결과 원칙에 어긋나는 축구협회의 대표선수 차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특정 구단이 아니라 전체 구단이 모두 차출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16일 오후 8시 파주 NFC에서 소집해 이날 저녁 곧장 도하로 떠날 예정이던 올림픽대표팀의 대회 참가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화)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금호생명-우리은행)(16 : 50·SBS스포츠)

▲프로농구(LG-전지랜드)(18 : 50·SBS스포츠, Xports)

### 노총각 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 대리기사 이야기!

노총각 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 대리기사 이야기!

060-700-3658

### 30만원대 히터가 무릎 꿇었다! 독일형 베커 벽난로형 히터!

가격, 난방비, 소음, 냄새, 그걸음까지 30만원대 히터를 능가하는 벽난로형 히터가 99,000원

080-717-5950